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Travel China

## 장자제(張家界)

바위와 나무로 그린 산수화

■ 사진/김주형 기자·글/박상현 기자, 협찬/중국국가여유국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장삼이사(張三李四)'라고 한다.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란 의미로, 중국에서 두 성이 그만큼 흔하기에 만들어진 사자성어다. 그래서인지 후난(湖南)성 서쪽 모퉁이에도 '장(張)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사는 동네'라는 뜻의 장자제란 도시가 있다. 그런데 광범하기 짝이 없는 지명과는 달리 이곳의 산천은 희귀하기 그지없다. 땅에서 솟은 바위와 나무들이 중국 최고의 산수화를 그려낸다.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면 '포정해우(捕丁解牛)'의 주인공이 오더라도 장자제에서는 감탄을 금치 못할 듯하다.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장엄한 작품 앞에서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거대한 대륙과 같은 중국은 신비롭기 그지없는 나라이다. 아열대에서 온대, 사막, 냉대까지 폭넓은 기후대에 걸쳐 있어 지역마다 경관이 상이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 군상이 살아가는 생활양식이 다채롭다. 그래서 여행할수록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고, 특징을 집어내기가 어렵다. 천태만상의 자연과 문화가 드넓은 땅에서 공존한다.

수수끼처럼 난해한 대국에는 절경(絶景), 혹은 가경(佳景)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합당한 장소도 무수하다. 각 성(省)에서는 '중국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풍경을 저마다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자이거우(九寨溝), 황산(黃山), 구이린(桂林), 장자제(張家界)를 으뜸으로 친다. 중국에는 '태어나서 장자제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살이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이 전해오는데, 장자제 대신 다른 세 곳을 넣어도 무방하다. 모두 사람의 공력으로는 절대로 빚어내지 못할 자연경관을 품은 곳들이다.

쓰촨(四川)성의 주자이거우가 고혹적인 물빛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면, 후난(湖南)성의 장자제는 대지 위에 펼쳐진 중중첩첩한 바위덩어리가 압권이다. 그리고 바위 꼭대기와 중간 어귀에는 마치 기생하는 생물처럼, 푸른 나무들이 위태롭게 자라고 있다. 웅장하면서도 오묘한 자연경관이 한 폭의 동양화를 떠올리게 한다.

동양의 산수화는 색이 화려하지 않다. 서양 인상파 미술가들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하얀 화폭이나 병풍에 새까만 묵을 적신 붓으로 선을 그리고, 점을 찍으면 그림이 완성된다. 현실에는 없을 듯한 선경(仙境)이다. 동양의 화가에게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데 다른 도구는 필요하지 않았던 듯하다. 색색의 물감이 없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장자제에 가면 비로소 동양화가들의 눈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 특히 태양이 중천에 이르기 전, 장자제의 풍경구를 내려다보면 앞쪽은 비교적 색상이 선명하지만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다른 검은색으로 윤곽만 어슴푸레하다. 어딘가에서 보았던 산수화가 눈앞에 나타난다.

사실 장자제의 비경들은 수억 년 전에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었다. 점차 땅이 융기하면서 바닷물이 빠지고,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현재의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그러나 산에서 바다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 Tujia People in Zhangjiajie

투자족은 후난성을 중심으로 후베이(湖北)성, 쓰촨성 등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지금은 한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 풍속이 많이 비슷해졌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곱게 수를 놓은 뒤통에 긴지마를 입고 있어서 한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신선이 되어 절경 위를 걸어보다

장자제를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하나의 산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실은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도시의 명칭이다. 소수민족인 투자족(土家族)이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링위안(武陵源)’이라고도 불리는 장자제는 삼림공원, 삭계육, 천자산(天子山) 등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구역은 면적이 넓어서 하루 동안 전부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최초의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된 장자제 삼림공원은 관광객의 발길이 가장 잦은 곳이다. 원가계(袁家界), 금편(金鞭)계곡, 황석채(黃石寨) 등의 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가계의 풍광이 가장 수려하다. 장자제의 패키지여행 일정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다.

원가계 관광은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시작된다. 300m가 넘는 높이를 수십 초 만에 오르는데, 바깥 경치를 조망할 수 있게 외벽이 유리로 돼 있다. 이후부터는 기기묘묘한 암석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 서 장관을 감상한다. 산책로 곳곳에서는 열쇠고리, 장신구, 옷 등의 기념품을 판매하는 투자족을 만날 수 있다.

원가계에서는 ‘되 산(山)’이 사물의 생김새를 본떠 만든 상형자인 까닭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한국의 산은 완만하고 부드러운 능선을 형성하는 반면, 이곳의 산은 뾰족하고 길쭉한 바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평평한 대지(一)에 기둥(丨) 여러 개가 박혀 있는 형국이다. 무술 영웅들이 날아다니는 무협지의 무대를 연상시킨다.

원가계에는 전망이 탁월한 곳마다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미혼대(迷魂臺), 선녀에게 절하는 장소인 배선대(拜仙臺),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곡인 연인곡(戀人谷), 자연적으로 생긴 아치 모양의 다리인 천하제일교(天下第一橋) 등이 그러한 예다. 하지만 원가계의 바위들은 보는 이들이 각자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비슷해 보이는 형상을 투영해 보면 더욱 흥미롭다.

금편계곡은 원가계에서 지척이다.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약 7km에 이르는 계곡인데, 바위 봉우리를 배경으로 흐르는 계수가 미려하다. 한나라 때의 재상이었던 장량(張良)의 스승 황석공(黃石公)이 도를 닦던 곳이었다는 황석채도 원가계처럼 기암괴석이 일품이다.

최근에는 장자제 시내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돼 있는 천자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늦게 개발돼서 순연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다. 구름과 안개, 달이 뜬 밤, 노을, 겨울의 눈과 천자산의 풍경이 겹치면 더욱 매력적이라고 한다.







## 악록서원, 천 년을 지켜온 교육의 산실

후난대학 안쪽에 자리해 있는 악록서원(岳麓書院)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1천 년 전부터 중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강론과 공부에 진력했던 곳으로 강의실과 사당, 정원이 흥기증기 모여 있다. 건물과 정원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유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도화원

예부터 좁은 공간에 자연과 인공의 미(美)를 응축시킨 정원은 문인들의 단골 시료(詩料)였다. 문필가들은 이곳에서 세상 만물의 조화와 이치를 깨닫고는 글로 옮겼다. 후난성의 도화원(桃花源) 역시 위대한 시인들이 시상에 잠기곤 했던 이름난 정원이다. 성맞춤이다.

중국 지도상에는 거의 붙어 있지만, 창사에서 장자제까지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만큼이나 멀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개통돼 그나마 시간이 단축됐지만, 4시간 이상은 족히 걸린다. 창사에서 출발한 버스는 여행자가 푸른 눈과 허름한 가옥이 전부인 차창 밖 풍경에 지루해 할 무렵 도화원이 자리한 창더(常德)에 닿는다. 자동차도, 사람도 휴식을 원할 때 등장한다.

사실 '창더'라는 도시명은 생소하지만, 도화원은 왠지 익숙한 느낌이다. 전설 속의 명승지인 '무릉도원(武陵桃源)'과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한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산에서 우연히 만난 별천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은 '도화원기'에서 '무릉도원'에 대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라고 서술했다.

도연명이 안빈낙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를 무릉도원이라고 지칭했던 이유는 창더의 도화원이 그를 매혹시켰기 때문일 듯하다. 무릉이 창더의 옛 지명이고 도원이 도화원의 줄임말이므로, 무릉도원은 곧 창더의 도화원을 가리킨다. 하지만 지금의 도화원은 도연명이 극찬했던 무릉도원은 아니다. 원나라 시대 말기에 화재로 소실됐다가 근자에 이르러 복원됐기 때문이다.

새로이 탄생한 도화원의 입구에는 복숭아나무가 뽀뽀하게 심어져 있다. 여름에는 녹음이 무성하지만, 봄이 되면 분홍빛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도연명이 '향기로운 풀 아름답고, 꽃잎은 어지럽게 흩날리는데.....'라고 묘사한 것 같은 진경(珍景)이 연출된다. 복숭아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면 연못과 회랑이 인상적인 정원과 작은 사당이 들어서 있다. 도화원을 세상에 알린 인물인 도연명을 기리는 '연명사'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무릉도원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

나.

## Information

**일반 정보** 중국의 남부 내륙 지방에 자리한 후난성은 구이저우(貴州)성, 쓰촨(四川)성, 후베이(湖北)성, 장시(江西)성, 광둥(廣東)성, 광시좡족 자치구와 맞닿아 있다.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21만 km<sup>2</sup>이고, 인구는 약 6천500만 명이다. 기후는 온대에서 아열대의 특성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따뜻한 편이다. ‘후난성’이라는 지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동팅호(洞庭湖)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데서 유래했다. 또한 후난성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상(湘)’ 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후난성을 관통하는 상강에서 따온 것이다. 성도는 창사이며, 전국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굴원(屈原)이 몸을 던져 자살했던 미뤄강(汨羅江)이 흐르는 웨양(岳陽)과 마오쩌둥의 고향인 사오산(韶山) 등의 도시가 유명하다.

**가는 법** 중국남방항공이 인천-창사 구간에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월·수·목·금·일요일 오후 4시 15분에 인천 공항을 이륙해 창사 황화 공항에는 오후 6시 15분에 도착한다. 창사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해 오후 3시 20분에 인천에 닿는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며, 음료와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남방항공의 인천-창사 노선에서는 기내 면세점이 운영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이 주 4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4회 운항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 대한항공은 오전에, 아시아나항공은 밤에 비행기가 뜬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등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국내선 항공기나 기차를 이용해 창사까지 갈 수도 있다. 광저우에서는 특쾌 열차로 약 7시간 30분, 베이징에서는 13시간 30분, 상하이에서는 18시간 30분이 걸린다.

**현지 교통** 창사 시내에서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는 대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되며, 운임은 1~2위안이다. 택시는 기본 요금이 8위안이고, 이후 1km당 1.6위안이 더해진다. 창사에서 장자제까지 가는 방법은 비행기, 기차, 버스 등 다양하다. 여행객은 일반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창사에서 우링위안까지 5시간 정도 걸린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자제 안에서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패키지여행으로 돌아보는 것이 낫다.

**비자, 환율, 시차** 여행이 목적이라면 중국 입국 비자는 30일 단수로만 발급된다. 여권과 반명함판 사진 1장,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며, 비자 발급 비용은 소요 기간에 따라 다르다. 4일이 걸리면 4만5천 원, 2일이 걸리면 7만5천 원이다. 5인 이상의 단체 비자는 2만5천 원이다. 9월 22일 현재 환율은 1위안이 약 164원(매매기준율)이다. 시차는 중국 전역이 한국보다 1시간 늦다.

**후난성 국제 관광 축제** 여행지로서 후난성이 가진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후난성 국제 관광 축제가 ‘세계를 위한 춤(Dancing for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장자제에서 개최됐다. 12일 장자제 삼림공원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서는 장자제의 아름다운 자연을 춤사위로 표현한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대용부성에서는 장자제의 풍치를 소재로 한 사진과 그림 전시회가 진행됐다.

## 가볼 만한 곳

**창사 후난성(湖南省)박물관** 진시황릉원의 병마용갱과 함께 고대의 신비로 알려진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1972년 최초로 발굴 작업이 시작됐는데 목관과 목우, 악기, 칠기, 견직물, 식량 등이 발견됐다. 이중에서도 154cm의 미라가 유명한데, 발굴 당시 머리 카락과 피부가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연중 개관하며, 입장료는 50위안이다.

**천심공원(天心公園)** 기원전 202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성벽으로 공원의 남단에 천심각이 자리해 있다. 이 누각은 수차례의 전쟁으로 훼손된 바 있으나 1983년 재건됐다. 누각의 꼭대기에서는 시내를 굽어볼 수 있다. 공원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고 곳곳에 꽃이 피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천심공원은 19세기 후반 태평천국 시절 태평천국군이 청나라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사오산 마오쩌둥경구** 사오산은 창사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고을로 마오쩌둥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다. 후난성의 전통 가옥인 생가에는 1919년 마오쩌둥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으며, 기념관은 마오쩌둥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물과 유품으로 구성돼 있다. 창사에서 기차나 버스로 약 3시간이 소요되며, 숙박할 곳이 부족하므로 창사로 돌아오는 교통편의 시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류사오치(劉少奇) 기념관** 마오쩌둥에 이어 국가 주석이 됐던 인물인 류사오치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류사오치는 중국 공산당의 이론가로 유명했으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반 마오쩌둥 실권파의 수령’으로 지목돼 모든 공직을 박탈당했다. 기념관에는 19세기 말 후난성 농가의 정경과 류사오치가 공부하던 모습이 재현돼 있다. 창사 서부버스터미널에서 화명루(花明樓) 진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대용부성(大庸府城)** 장자제 시내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로 상점, 식당, 호텔, 박물관 등이 즐비하다.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옛 거리를 거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대용부성 내 박물관에는 중국 소수민족의 종교와 수공예 문화를 알려주는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투자족의 복식 문

화와 음식 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사이트**

중국국가여유국 [www.cnto.or.kr](http://www.cnto.or.kr) / 후난성여유국 [www.hnt.gov.cn](http://www.hnt.gov.cn)

[▲ top](#)

